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 자유화 조치와 시사점

기승도 수석연구원, 이소양 연구원

요약

■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2012년 2월 23일)에 따라 점진적으로 상품 및 요율 자유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이 통지에 따르면, 통계량 30만 건 이상 등의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개별 회사가 자사의 상품 및 요율을 개발할 수 있음. 중국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을 볼 때 대형4사를 제외한 많은 보험회사(중자계 및 외자계 보험회사)는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보임.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손해보험회사들은 상품 및 요율과 관련된 새로운 진입장벽을 극복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현재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과 자동차상업보험 A, B, C가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또는 요율제도)임.

-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은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이며, 약관내용 및 요율은 정부에서 통제하고 있음.
- 자동차상업보험 A, B, C는 소비자가 필요에 따라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대형 손해보험 3사(A는 PICC, B는 핑안, C는 태평양)가 개발하여 제시한 것임.
- 보험회사는 자동차상업보험 A, B, C 중 선택한 하나를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과 결합하여 자동차보험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음.

〈표 1〉 중국 자동차보험 상품 종류

구분	상품 내용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제3자 신체상해, 제3자 재물손해, 의료비로 구성되어 있음
자동차상업보험 A, B, C	A, B, C 상품은 차량손해보험, 제3자배상책임보험, ¹⁾ 탑승인원손해보험, 절도손해보험 및 기타 부가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료: 刘资媛(2011), 『汽车保险与理赔』, 人民交通出版社.

■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국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제도하에서는 회사 간 상품내용 및 요율수준에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의 약관내용 및 요율은 정부기관(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적극 관여하므로 회사별 요율차이가 발생할 수 없음.
- 자동차상업보험 A, B, C의 경우도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에서 이들 간 요율수준 등에 큰 차이가 없도록 유도하였음.

■ ■ 회사 간 자동차보험료 차이가 거의 없는 현행 자동차상업보험 상품 및 요율제도는 2012년 2월 23일에 제정된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 이후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의 내용에 따르면, 30만 건 이상 자동차상업보험계약 자료를 보유하고 있거나, 최근 연속 2년(회계연도) 동안 심사 후 종합원가율 100% 이하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한 보험회사는 자기회사만의 약관 및 요율을 개발할 수 있음.
- 보험협회는 개별 보험회사가 참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상업보험시범조례(약관, 요율 및 손해율 포함)를 보험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보험회사에 제공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협회의 조례를 이용하거나 참조하여 자사의 자동차상업보험 약관을 제정하고, 협회에서 제공하는 산업 손해율을 참조하여 자사의 자동차상업보험 요율을 산출할 수 있음.

〈표 2〉 개별회사의 약관 및 요율 개발 요건

1. 관리구조 완비, 내부제도 건전, 데이터 충족, 자동차 상업보험 운영기간 3년(회계연도) 이상
2. 최근 연속 2년(회계연도) 동안 심사 후 종합원가율 100% 이하
3. 최근 연속 2년(회계연도) 동안 심사 후 채무 상환능력(보험회사 실제 자본/최저 자본) 150% 이상
4. 30만 건 이상 자동차 상업보험 보험계약 데이터 보유
5. 자동차상업보험 상품개발팀(전문인력), 법률 및 자동차상업보험 실무 운영 전문인력, 경영프로세스 및 정보시스템 보유
6.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기타사항

자료: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

■ ■ 따라서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대형회사들은 경쟁력 있는 자사만의 상품(약관)과 요율을 개발하여 판매할 가능성이 크지만 시장점유율이 낮은 중소형사 또는 외자계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상품 및 요율경쟁력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음.

- 1) 자동차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는 보험.

- 2011년 말 기준으로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회사 수는 총 48개이며, 이중 대형 4사(PICC, 핑안, China Pacific, China United)는 2011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이 73.1%에 이릅니다.
- 대형 4사의 시장점유율을 제외한 나머지 시장점유율 약 26.9%를 놓고 40여 개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으므로, 이들 대형4사 이외의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은 동 통지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자동차상업보험조례 및 요율 관리강화 관련 통지』 이후, 상품 및 요율경쟁력을 갖춘 대형 손해보험회사의 높은 시장점유율은 지속될 것이며, 상품 및 요율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중소형사(외자계 보험회사 포함)는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됨.

- 상품 및 요율개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형사는 향후 동 통지에 따라 적극적인 상품개발과 요율차등화를 꾀할 개연성이 큼.
- 상품 및 요율개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중소형사 및 외자계보험회사는 중국보험협회에서 개발하여 제공하는 상품(약관) 및 요율을 활용하여 영업을 해야 하는데, 협회가 제공하는 요율 및 상품의 시장 경쟁력 여부가 중소형사 및 외자계의 영업경쟁력과 직결될 것임.

■ 그러므로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자계 보험회사 또는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자계 보험회사는 이성과 같은 중국 자동차보험 요율 및 상품제도 변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할 것임.

- 대처방안으로는 1) 중국손해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 통계를 구매하는 방법을 찾고, 확보된 통계를 이용하여 자기회사만의 강점이 반영된 보험상품을 개발(예, 일반화선형모형을 이용한 요율상대도 산출 등)하는 것, 2) 위험과 연계된 다양한 상품개발(예, 주행거리 연동 자동차보험제도), 3) 상대도를 활용한 목표시장(Target Market) 가격전략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임. [kiri](#)